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33

“우리도 뛴다”

28일 오전 제43회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광주시 남구청(청장·황일봉) 마라톤클럽 회원들이 구청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km 뛸 때마다 100원씩 적립**불우이웃 돋기 ‘한마음 질주’****■ 광주 남구청**

‘3·1절 마라톤대회를 통해 건강도 향기고 활기찬 직장을 만드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완주하겠습니다.’

제43회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광주시 남구청 마라톤클럽(회장·배운식 주택팀장)은 광주시 5개 구청 중 가장 많은 회원인 60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풀코스를 완주한 회원만도 20명이 넘는다.

6번의 풀코스 완주 경험이 있는 황일봉 청장도 이번엔 하프코스에 선수로 나선다. 매년 10월12일 ‘효사랑전국마라톤대회’를 개최할 만큼 마라톤 마니아들이 많은 구청인 샐이다.

회원 60명 중 풀코스 완주자 20명

그렇다 보니 이번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참석하는 숫자도 103명에 달한다.

마라톤코스별 참석자는 5km 58명, 10km 25명, 하프코스 20명. 마라톤 클럽 회원을 제외하더라도 40여명이 넘는 일반 공무원이 참석하는 등 마라톤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 화순 도곡 온천에서 나주시 다도면사무소 까지 왕복 32km를 뛰면서 대회를 준비해왔다.

평일엔 무등경기장 트랙과 광주천까지 약 20km를 돌면서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다.

‘마라톤 마니아’ 황일봉 청장 하프코스 도전

눈에 띠는 참가 선수는 풀코스만 35회 완주한 경험이 있는 마라톤클럽 초대회장인 김광용(51) 생활체육팀장과 철인 3종경기·마라톤 완주를 매년 20회 이상 하고 있는 월산동사무소 김기명(43)씨.

3시간8분대 풀코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생활체육과 김팀장은 “이번에야 말로 서브3(풀코스를 3시간 이내 완주하는 것)을 기록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마라톤(42.195km)·수영(3.8km)·사이클(180km)을 완주해야하는 철인 3종경기에 참석한 김기명씨도 “체력이 좋아야 일도 잘 할 수 있다”며 “다같이 잘사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월 예정이다.

남구청 참가자들은 뛰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참석자 모두 1km를 뛸 때마다 100원씩 적립해 불우이웃을 돋는 이웃사랑도 실천하겠다고 나섰다.

배운식 회장은 “우리들의 한걸음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희망이 담긴 한걸음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찌 더 안 될 수 있겠나?”며 “103명 모두 꼭 완주해서 더 많은 이웃을 돋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